

한국 언어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

김성도
(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본고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언어 연구에 대한 인식론적 탐색을 목표로 삼는다. 논의의 대상을 좁혀서 말한다면 본격적인 서구 언어 이론의 수용이 이루어진 지난 30년 동안 성취된 한국 언어학의 생산 및 노선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언어학의 주소를 파악하는 작업은 단편의 글로 다루어지기에는 그 영역이 방대하고 상황도 복잡다단하다. 따라서 이 글은 대체로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진행된 한국 언어학의 흐름에 대해서 약술하고, 일종의 학문적 지형도 또는 계보도를 그리면서 한국 언어학의 역사를 쓰기위한 준비 작업에 머무른다.

참고로 말하면, 국어학의 경우는 위 주제와 엇비슷한 기획의 일환으로서 적지 않은 학술사가 출판된 상태다.¹⁾ 하지만, 이 같은 학술사는 대부분 천편 일률적인 편집 형식을 띠고 있으며 과거의 연구 저작물에 대한 서지 작업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국어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방법론적 인식론적 성찰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사가 구비하고 있어야 할 비판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요컨대, 기존의 학술사 연구물은 외국 이론의 수용 과정을 약술하고, 언어 연구의 여러 층위에 걸쳐서 한국어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평면적 주제 나열에

【Keywords】 linguistic historiography, epistemology, Korean linguistics, generative linguistics

1) 대표적인 국어 연구사는 다음과 같다.

고영근, 성광수, 심재기, 홍중선(편), 『국어학연구백년사』, 일조각, 1992.

김민수(편), 『현대의 국어 연구사』(1945-1992), 서광학술 자료사, 1993.

그치고 있어,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또 하나, 지적할 한계점은, 대체로 국어학사를 비롯해서, 국어학의 각 전공자들이 세부 분야의 학술 업적을 정리한 서지 작업에는 학사의 서술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상사와 과학사 등에서 온축된 학술사 서술 동향과 과학 철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대부분의 국어 연구 학술사들은 국어학, 또는 한국어학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어학의 범주보다 상위 범주인 한국의 언어학에 대한 학술사와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한국에 서구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짧게 잡아도 30년 정도의 역사에 이르는데, 아직도 한국 언어학의 통시적 개괄 또는 그것의 소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한국 언어학 자체의 공백이 아닐 수 없다. 6년 전 쯤, 이와 유사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서 필자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모두 다섯 분의 쟁쟁한 중견 국어학자, 언어학자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서도,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연구자들의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학연과, 스승과 제자, 선, 후배 학자들의 정서적 유대 관계, 더 나가 인간적 친화 관계로 묶여져 있는 한국 언어학계 및 국어학계에 있어서 철저한 비판은 아예 연구 초기부터 포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필자는 현재 최소한 언어학 제도권의 중심부에 있는 미국에서 교육 받은 언어학자들에 속하지도 않고, 또 국내에서 훈련받은 국어학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도 않으므로, 비교적 이들 학자들에 비해서 한국 언어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본다. 하지만, 필자 역시, 그 비판의 수위 조절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답하기에는 제도권의 안일함과 타성에 물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국 언어학의 연구 동향에 대한 지식 사회사와 연구 분야의 경향을 계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통계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는 피상적이거나 인상 수준에 머무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필자는 한국의 언어학자에 대한 인물사와 더불어 학술사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역사적 인식론적 연구에 착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차후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각들의 포석을 두는 데 머무른다.

논자의 논지 진행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우리는 위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술사 방법론 모델의 필요성을 지적한 후, 필자가 개발한 삼원적 요소로 이루어진 학술사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향후 다른 분야의 학술사 연구에도 일조를 하기 바란다.

둘째, 언어학의 개념 설정을 위해서, 사전적 정의에서 시작해 전문가적 정의로 확대시키고, 근대 언어학과 현대 언어학의 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해볼 것이다. 아울러, 언어학의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연감물에서 설정한 연구 분야를 소개할 터이다.

셋째, 본 주제는 역사적 맥락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아울러 한국 언어학의 형성 과정을 서구 언어학의 수용사라는 점에서 기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수용사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짚어보는 작업이다.

2. 학술사 연구의 방법론

서구 학계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언어학사의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인식론적 토대를 논의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투자되었다.²⁾ 하지만 여

2) 언어학사의 본격적 연구를 개시한 퀘르너 교수를 비롯해서, 독어권의 슈미터 교수, 그리고 프랑스의 오루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사상사연구회 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업적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Auroux, S.,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Liege-Bruxelles, Mardaga, Introduction, 1989, pp.13-37.

Koerner, E. F. K. *Practicing Linguistic Historiography (Selected Essay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9.

전히 언어학사 서술의 완결된 방법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언어학의 경향과 주소에 대한 연구는 곧 한국언어학사의 총체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총체적 인식의 범주에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시각이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 언어에 대해서 한국의 언어학자들(여기서는 국어학자와 영어학자를 비롯해서 그 밖에 개별 언어학 전공자가 포함된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론적, 철학적, 경험적 성과로서, 언어와 관련된 지식들의 내재적 역사를 말하며, 국어학사 따위의 개별 언어학사와 일반 언어학사 모두가 범주에 속한다. 둘째, 외재적 인식론으로서(*external epistemology*), 언어학의 주요 사상과 이론을 언어학의 토대를 받혀주거나 에워싸는 다른 철학적 토대와 학제적 관련성을 사상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시각을 말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언어학사는 일반 인식론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³⁾ 즉, 언어학사가 과학사 및 사상사의 부분을 이룬다면, 언어학사 또는 언어 사상사는 특정 시대의 지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지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외재적 인식론을 한국 언어학사에 적용시킨다면, 예컨대, 지난 25년 동안 한국 언어학을 주도해온 미국 중심의 언어학 연구가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인 계량화, 형식화, 실용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어 및 외국어, 고전어 등 자연 언어들과 관련된 지식의 사회학적 또는 제도적 양상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언어학이라는 학문적 활동의 지적 생산물, 즉 인식론적 성분은, 그 과학의 사회적 정치적 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지식 사회학의 확신이다. 왜냐하면 학문적 장의 기능 작용은 이미 특정 이해관계의 특별한 형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타계한 프랑스

Schmitter, P. (ed.s), *Geschichte der Sprachtheorie*. 1. Zur Theorie und Methode der Geschichtsschreibung der Linguistik, Tübingen, G. Narr. 1987.

3) 이같은 역사 인식론적 시각에서 근대 언어학의 창발 과정을 천착한 불후의 명작으로 논자는 푸코의 주저 『말과 사물』을 자신있게 추천한다.

Fiucault, M.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66.

의 세계적 사회학자인 부르디외에 따르면 학문적 능력과, 학문의 장에서 결정된 동작 주체를 포착하는 사회적 표상과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중립성이란 특정 학문적 지배 집단의 표상을 가로막기 위한 허울 좋은 허구에 불과하다.⁴⁾

이 같은 시각에서 언어학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언어학이라는 학문적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학적 개념들의 전개 흐름과 분절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학의 사회사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 같은 지식 사회학적 시각을 도입할 경우, 한국언어학사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학사 서술의 시야를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국어 연구 종사자 및 언어 연구 전공자들의 전공 분포와, 관련 학술지의 창간 및 편집 방침, 연구 경향, 언어학 연구의 재정적 상태 및 프로젝트의 선정 과정 및 연구 진행 과정, 국어학 강의 및 언어학 관련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과들의 현황 및 교육 실태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시켜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3. 전통 언어학, 근대 언어학, 현대 언어학 : 비교인식론적 시각

한국의 근대 학문 수용 과정에서 최초로 언어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학자와 언어학이라는 용어의 출현 연도에 대한 세밀한 문헌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정확히 언제부터 언어학이란 학문 개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서구의 경우, 언어학에 해당되는 독일어 단어, Linguistik와 불어 단어

4) Bourdieu, P. "Le champ scientif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n.2-3, 1976, pp.88-104.

5) 서구 언어학계에서도 이같은 지식 사회학적 시각을 적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필자가 접한 두 가지 연구물을 소개한다. 하나는, 프랑스의 현대 언어학사를 지식 사회학적 시각에서 다룬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독일의 근대 언어학의 발생 및 전개 과정을 지식 사회학의 시각에서 다룬 수작이다.

Chevalier, Jean-Claude & Encreve P, *Vers une histoire de la linguistique*, in: *Langue Francaise no.63*. 1984.

Amsterdamska, O. *Schools of thought: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from Bopp to Saussure*, Dordrecht, Reidel. 1987.

Linguistique가 나타난 것은 서지 분류를 목적으로 1777년 쓰인 것이 최초이며, 1808년 바테르 J. S. Vater는 상이한 언어들의 속성 및 분류를 시도하며, 언어들의 계보 및 친족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정의한 바 있다.⁶⁾ 물론 그 당시 언어학은 제 언어들의 발생과 역사적 계보 및 소속의 문제를 다루는 학술 분야로 인식되었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이미 언어 연구가 타 분야의 도구적 보족적 수단으로 연구하는 문헌학과 차별되는, 언어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적 자율성과 독자성이 확보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한국 언어학의 역사적 계보를 구성함에 있어서 유의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한국 언어학의 영역과 범주가 결코 서구 이론의 명시적 유입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국어 연구의 현대적 이론화 과정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대 언어학의 개념적 잣대와 이론적 대상의 기준으로 한국 및 동양권에서 이루어진 언어와 관련된 이론적 성취물을 서구 언어학과 철학의 과학성과 논리성의 표준으로 배제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학이라는 특정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순전히 기술적 (descriptive) 의미로 언어학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언어학을 비롯해서 모든 지식은 역사적 산물이며, 이 같은 사실은, 곧 특정 지식은 다양한 역사적 전통들과 문화적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만약 이 같은 준칙을 수용한다면, 공간과 시간의 축에서 상이하게 위치한 지식의 생산 방식과 구조 및 양상들이 동일하게 조직될 어떤 필연적 이유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이지만, 제각기 다른 문명권의 전통과 언어들의 유형적 특성의 차이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언어에 관한 지식의 수준, 시각, 성격 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자 문명권 최초의 사전이자 문자학에 해당되는 『설문해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산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견주어 전혀 인

6) Linguistique 라는 단어의 최초의 출현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Auroux, S. "The first uses of the French word "Linguistique"(1812-1880)" Aarsleff, H. et al. (eds.), *Paper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 Benjamins. 1987, pp.447-459.

식론적 우열관계로 논의될 수 없으며, 17세기 조선 시대에 편찬된 어휘사전을 비롯한 辭書와 韻書의 편찬은 동시대에 프랑스에서 나온 최고의 합리주의 문법서인 뵘르 루와알 문법(La grammaire du Port Royal)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지식 체계라는 말로 통할 수 있다. 언어라는 현상은 보편적이며 동일하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인지적 전략들은 문화권마다 상이하면서도 일정한 불변적 요인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7)

한국 언어학의 성립은 서양언어학의 수용과 더불어 본격적인 학술적 토대와 입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 언어학의 중요한 부분인 한국어 연구의 본격적 연구가 서양 언어학 이론이 도입된 개화기 이후의 한국어학으로 국한될 수 없듯이, 한국언어학의 시초를 단지 20세기 초반기로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어학의 진정한 시작은 인류 문자사의 최고의 보배인 한글을 만들어낸 15세기의 언어적 지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8) 즉, 15세기 중국의 성리학의 우주론과 고도로 발달된 음운학의 지식을 도입하

7) 이점에서 한자 문화권에 속하면서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해온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어 연구의 성과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언어 사상을 집필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국의 언어학과 사상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투사시켜 참신한 연구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업적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王力, 『中國語言學史』, 중국 도서간행사, 홍콩, 1984.

胡奇光, 『中國小學史』, 동문선, 1994.

복지진, 『중국언어학사』, 김현철 외 번역, 신아사, 1995.

猿田知之, 『日本言語思想史』, 笠間書院, 1993.

8) 국어학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된 학설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은 국어에 대한 반성과 차차표기법의 형성이 이루어진 시기도 국어 및 언어에 대한 의식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사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유창균, 『국어학사』, 1994, 강신항, 『증보개정 국어학사』, 1987. 한편, 김석득은 『우리말 연구사』(1983)에서, 국어학사의 기점을 문자 창조가 이루어진 15세기의 문자와 음운 연구로 삼고 있다. 반면, 고영근이 편한 『국어학 연구사』(1985)에서는 국어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문적 위상을 갖춘 것은 서양 문법이 도입된 이후로 봄으로써 국어학사에서 훈민 정음과 관련된 연구를 제외시키는 과감한 국어학사 서술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김완진, 정광, 장소원 공저, 『국어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pp.1-18.

여 15세기 한국어의 음운, 음절, 형태, 어휘, 구절, 문장을 치밀하게 분석한 훈민정음 창제의 바탕이 된 언어 연구를 한국 언어학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언어학의 형성과정을 현대로 국한시켜서 논해 보자.

4. 서구 언어학의 수용과 한국 언어학의 형성 과정

먼저 언어 이론의 수용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해당 언어권으로부터 직접 이론을 수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3국을 통한 간접 수용의 방법이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근대화의 자율적 성취 기회를 놓친 한국은 언어 연구에서 초기에는 대부분 일본의 언어학계를 통한 간접 수용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소쉬르를 비롯해서 유럽의 언어학 이론을 수용한 초기의 한국어 연구는 일본을 통한 간접 수용이었다. 광복 이후 한국어 연구는 미국의 언어학 이론에 대한 직접적 수용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권재일 교수도 그의 저서 『한국어 통사론』에서 지적했듯이, 광복 이후의 한국어 연구는 미국의 언어학 이론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서, 언어학의 전체적 윤곽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서구의 언어학사에 대한 안목도 부재했다.

아울러 서구 언어학의 수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사항은 서구의 언어학사의 발전 과정이 그대로 순차적으로 한국 언어학에 수용되지 않고, 일종의 시차 내지는 시대 착오성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대 언어학을 낳은 비교 역사 문법의 언어학은 무려 1세기가 지난 195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써 한국의 언어학계에 직접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4.1. 제1기 : 전통 문법 이론

전통 문법 이론은 19세기 말 서양의 문법서를 통해서 유입되었다. 서양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 목적으로 한국어 문법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는 서양의 전통 문법 이론을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동

안 서양의 문법 이론서를 직접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일본의 문법 연구에서 정립된 문법 체계에 의존하여 일본에서 번역된 서양의 이론을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현대적 의미에서 한국 언어학은 20세기 초에 유길준과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럽의 전통적인 학교 문법의 형식으로 국어 문법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19세기 동안 유럽에서 축적된 언어학 이론과 사상들은 우리 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직접 수용되어 국어 연구에 적용되는 기회가 애초부터 차단되었다. 서구의 전통 문법 이론은 한국어 문법론 연구 및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 문법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체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자 생활에서 규범을 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 지배적 해석이다.

4.2. 제2기 : 유럽 구조 언어학 수용

정확한 문헌학적 연구가 부재하지만, 아마도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서울에 설립되고 유럽의 일반 언어학 지식을 수용했던 일본인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서 당시의 한국 학생들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유럽 언어학을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소쉬르의 명저 『일반언어학 강의』를 세계 최초로 번역한 히데오 고바야시의 일본어 번역판 『언어학원론』(1928)을 통해서 30년대에 한국 최초의 언어학자들이자 국어학자들에 의해서 서구 이론이 수용되기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 현대 언어학 지식을 전수 받은 학자로는 이희승(1895-1989), 방중현(1905-1952), 이송령(1908-1996) 선생들을 손꼽을 수 있으며, 서양의 언어 이론을 습득하여 국어 연구에 착수한 장본인들이다. 물론, 이 분들이 유럽의 근대 언어학 체계를 직접 소화하고 창조적으로 섭렵하여 국어 연구에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국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 후, 1950년에 진입하면서, 음운론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의 구조 언어

학과 미국의 구조 언어학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학자로는 허용 선생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광복 이후, 수용된 미국의 기술 문법 중심의 구조 언어학은 유럽의 구조 언어학과는 그 방법적 토대와 연구 목표가 크게 달랐다. 미국의 구조 언어학은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들에 대한 문화 및 언어 연구를 담당한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철저하게 귀납적이며 객관적인 언어 연구였다. 미국 기술주의 언어학의 수용 효과로서는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형태론 중심의 문법 기술이 실현됨으로써 문법 형태소에 의해서 문법 범주가 실현되는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을 해명하는 데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주의의 기술주의는 형태소 차원에 머물렀으며 한국의 통사론 차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4.3. 제3기 : 역사 비교 언어학에 의한 한국어 계통론 연구

통상, 대부분의 서구 언어학사 연구자들은 서구 근대 언어학의 효시로 19세기 초 역사 비교 언어학의 발판을 마련한 프란츠 보프의 비교 문법을 손꼽고 있다.⁹⁾ 즉, 18세기 말 발견된 산스크리트어와 고전어 사이에 발견된 형태적 공통점들로부터 역사 비교 언어학이 탄생된 것이다. 인도 유럽어족의 역사적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19세기의 언어학은 다른 지역권의 언어들의 연구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언어들 사이의 유형론적 무리화를 가능케 하였다.¹⁰⁾ 예컨대, 한국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된 우랄알타이어족은 19세기 중엽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20세기 초 핀란드 언어학자인 람스테드에 의해서 우랄어족과 알타이어족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그는 한국어를 튀르크어군, 몽고어군, 만주통구스어군과 나란히 존재하는 알타이어족의 네 번째 지

9) 비교 언어학의 태동 및 방법론적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가 최근에 프랑스의 언어학사 연구진에 의해서 나왔다.

Auroux, S.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tome 3, Bruxelles, Mardaga, 2002.

10) 비교 방법론이 인도 유럽어족 이외의 언어들로 확대 적용된 과정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Malmberg, *Histoire de la linguistique*, Paris, PUF, 1991, pp.347-362.

류로 가정하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국내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학자 포페의 알타이제어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국어의 유형과 계통론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 서면서 이기문, 김방한 교수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어의 계통론 연구는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한다. 즉, 이들 초기 국어학자들은, 서구 언어학사의 통시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우랄 알타이어 연구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탄탄한 역사 비교 언어학 지식도 갖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기까지 서구에서 축적된 현대 언어학 지식의 흐름에도 무지한 상태에서, 이들이 제기한 가설의 증빙 자료로서 고대, 중세 국어의 자료 수집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4.4. 제4기 : 변형 생성 문법의 초기 유입 시기

미국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의 도입 시기로서, 촘스키가 창안한 생성 문법은 미국의 기술 문법과 행동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다. 변형 생성 문법은 인간의 보편적 인지 능력을 밝히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인간의 언어 구사 능력과 모국어 획득 능력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 문장 구조와 그것의 적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한다. 둘째, 철저하게 통사 중심 이론이며, 셋째, 가설과 검증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논리의 방법이며, 더 나가 이론을 수정하는 가설과 검증 방법을 제기 한다. 넷째, 수리-논리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우리 나라의 생성 문법의 유입은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는 동안 유입된 생성 문법의 유입기, 두 번째 시기는 LGB(지배와 결속에 관한 강의) 에 초점을 둔 시기, 세 번째 시기는 최소주의 이론의 유입기이다.

전통 문법적 국어 연구와 외국의 새로운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생성 문법적 접근에 의한 국어 연구가 어느 정도 혼용되어 나타난다.

츨스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변형 생성 문법의 연구가 창발한 것은 1957년에 발간된, 『통사구조』가 효시다. 이 책에서 그는 통사 연구를 의미 연구와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통사론의 자율성 테제를 천명한다. 아울러 변형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간은 유한한 기호들을 갖고 무한수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인간 언어의 고유한 창조성을 주장한다. 이같은 언어의 무한한 생성 능력은 언어의 문법 규칙이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츨스키의 새로운 이론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64년 김민수 교수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결정적 한계는 국내 언어학계의 경우, 츨스키의 이론은 구조주의 또는 행동 주의에 대한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즉,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적 인식론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

1960년대에 국내 언어학계에 변형 문법을 도입한 것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이들 소장 학자들은 대부분 변형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생성 문법 연구의 계열에 속하면서도, 국어 현상 자체의 분석을 중시하는 국내파 언어학들로서는 김민수, 남기심, 고영근, 이익섭 등을 손꼽을 수 있다. 1975년에 창립된 한국언어학회도 생성 문법의 도입 및 국어학에로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창구 역할을 맡았다.

1960년대의 생성 문법의 연구가 국어에 기여한 분야는 조사에 관한 연구, 대용사, 부정문, 피사동 연구, 관계문 및 보문화에 대한 연구를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아울러, 국어의 이중 주어 및 이중 목적어의 문제가 새로운 시각에서 제기되어, 변형 문법의 관점에서는, 이중 주어 현상은 표면 구조의 현상이고, 심층 구조에서 이중 주어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가능해졌다. 특히, 자기와 같은 대용사 문제는 전통 문법에서는 연구가 된 적이 없다가 생성 문법의 도입으로 관심을 받게 된 현상이다. 자기와 그를 중심으로 재귀화와 대명사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배 결속 이론은 기념비적 사건으로서, 이 이론의 한국 언어학계에서의 수용에 있어서 양동휘 교수의 공헌이 크다. 하지만,

국어에 대해 적용되어 다루어진 예들이 연구자 자신 자신들의 이론 구성을 지지하는 데 이용된 점이 두드러지며, 국어 현상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5. 형식언어학 수용의 몇 가지 문제점

본격적으로 수용이 이루어진 약 30년 동안 나타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무비판적인 거의 맹목적 수용 태도로서, 한국어의 언어적 현상 자체를 관찰하고 기술하기 보다는 언어학에서 논의되는 대상에 맞추어 미국의 형식 언어학의 변화하는 이론에 맞추어 특정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한국어의 본질과 특징을 연구하려는 자생적 필요성을 결하고 있고, 문제의식과 문제형식, 문제해결 등 모든 것을 수입한 채 그대로 한국어에 통째로 적용한 경향이다. 두 번째는 무비판적 태도 또는 무관심한 태도로서, 이것은 이론 자체의 난해함 또는 이론 자체의 심각한 결함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론 자체가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비판적 수용 태세로서, 균형 잡힌 태도이다.

아무튼, 생성 문법은 나름대로 기여도 했다. 언어 자료를 분석 기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술한 언어 현상을 이론화하는 데까지 진전했으며, 언어 보편성에 대한 이해와 언어 유형론에 대한 이해를 높혀 주었다.

문제점으로서의 이론 자체의 맹목적 추구로 인해서, 이론 자체의 결함까지 수용하는 넌센스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언어 보편성의 지나친 추구로 인해서 한국어의 통사적 특성이 무시되었다.

츨스키 언어 이론의 철학적 배경 및 인식론적 논리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전무했으며,¹¹⁾ 이론의 피상적인 적용 및 적용상의 오류와 형태론을

11) 서구 언어학계 및 언어 철학계의 경우, 츨스키 언어학의 멘탈리즘 및 언어 이론의 논증 과정을 비롯하여, 생성 문법의 비경험성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결함 등에 연구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논자의 견해로, 대표적인 업적은 해석학의 입

경시하는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한정, 통사론 전체의 문제에서, 한국어 문법의 특징과 무관하게 특정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예컨대, 80년대부터 약 20년동안 한국 언어학계에서 연구된 한국어의 재귀사 자기에 대한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 자체가 한국어에 대한 내적 요구에 의한 수용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문제 틀을 직수입한 데서 나온 결과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문제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론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자료의 관찰과 기술이 소홀히 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자료를 경시한 이론 중심의 연구로서 직관에 근거하여 언어 자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통사적 본질을 밝힐 수 있는 대목은 서술어 중심의 연구, 즉 형태론적 현상의 정밀한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어미들이 갖는 통사적 기능을 해명해야 비로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에 부합되는 연구 프레임워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의 틀에 한국어 예문을 억지 춘향격으로 뜯어맞추려는 논증 방식으로 인해서 기형적인 한국어 문장들이 이들 언어학자들의 논문에 다반사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한국어는 지난 30년 동안 촘스키 언어학 이론 및 형식 언어학 이론의 실험적 대상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아방가르드’적 한국어 문장들이 도처에서 만들어졌다.

철수가 영수에게 책을 준다. 그리고 노트를 영희에게도야.

장에서 촘스키가 주장하는 언어학의 자연과학적 경험성을 비판한 연구와, 촘스키 언어 이론의 논증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보타의 일련의 저서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Botha, R. *The methodological status of grammatical argumentation*, The Hague/Paris, Mouton. 1970.

_____, *The justification of Linguistic hypotheses (a study of nondemonstrative inference in transformational grammar)*, The Hague/Paris, Mouton. 1973.

_____, “External evidence in the validation of mentalistic theories: A chomskyan paradox”, *Lingua* 48, 1979, pp.299-328.

Itkonen, E. *Grammatical theory and metasci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1978.

생략 현상을 설명하기 한 젊은 언어학자가 도입한 생략(gapping) 이론에서, 한국어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구가 생략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발화할 법한 이런 문장도 사용한다.

“철수가 사과를 먹어, 그리고 영희도야.”

“철수가 사과를 먹어, 그리고 바나나도야.”

이른바 부정극어라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any 에 해당되는 국어 아무에 대한 어색한 예문들은 현실적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도저히 발화될 수 없는 문장들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한국의 언어학 관련 논문을 보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문장들이다(실제로 다음 예문들은 [언어]지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예문들이다).

“기껏해야 세 사람이 아무 것이라도 먹었다.”

at most three people ate anything

“너 어제 모임에서 네가 하고 싶은 아무 말이라고 했니?”

Did you say anything you wanted to say at the meeting yesterday?

“민수는 어제 만난 아무 여자하고라도 악수를 했다.”

Minsoo shook hands with any woman he met yesterday.

“이 탁자를 들어올리는 사람이 아무라도 있다.”

There is at least a person who lifts this table

“네가 말하는 것이 항상 아무 것이라도 있다.”

There is always at least something that you say.

한편, 생성 언어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한국어 대명사 자기와 관련된 다 음과 같은 예문은 생성 통사론 전공자들이 지어낸 인공물이지 한국어의 실제 표현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한 마디로 자기와 관련된 예문은 한국어 실험성의 절정에 이른다.

“민수가 순이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가 민수가 순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니면, 한국어의 다중 의문사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논문에서 나오는 예문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철수가 어제 무엇 먹었니?”

“영희가 어디서 책을 사서 너는 화가 났니?”

“영희가 어떻게 책을 사서 너는 화가 났니?”

더구나, 한국 언어학자들이 영어로 쓴 논문에서 한국어 예문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을 읽노라면, 더 이상 친숙한 모국어가 아니라. 완전히 생소한 언어가 된 기분을 지을 수 없다. 이 같은 서구식 음성 전사의 문제는 사실은 서구 언어 중심의 언어관을 비서구어에 부과시킨 태도이기도 하다. 문제는, 언어학 전공자인 필자조차,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 풀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예는 하도 예가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한번 시험 삼아서, 독자들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글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시라. 친숙한 국어가 아닌, 마치 아프리카의 한 언어나 몽고어를 발음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한국 언어학자가 영어로 쓴 한국어 관련 논문의 표준 양식은 아래처럼, 한국어 문장을 특정 서구 알파벳 표기법으로 옮겨놓고 그 아래에, 각각의 한국어 단어와 형태소에 해당되는 영어 어휘나 문법 기능을 표시해 주고 있다.

“Apenim-kkeyse son-i congki-ka na-si-ess-ta.”

father-NOM (HON) hand-MOM boil-MOM get-HON-PST-DC

“Ku pun-kkeyse puin-i nai-ka manhu-si-ess-ta.”

“Mary-ka John-uy cip-esyse ku-lul mannassta.”

6. 한국 언어학의 지식 사회학

본 절에서는 한국 언어학의 현황을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묘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형성되는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거점을 보자. 명시적으로 언어학과는 국내에서 모두 6곳에 불과하다. 서울대 언어학과, 고대 언어과학과, 부산대 언어 정보학과, 부산외대, 외대 언어학과 등이다.

이들 가운데, 서울대 언어학과는 이미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언어학자들을 배출했다. 교수진은 전통적 역사 비교 언어학자들과, 미국의 형식주의 언어학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어서 1989년에 이기용 교수의 주도 아래 설립된 고대 언어과학과는 이론 언어학을 중심으로, 전산 언어학과 기호학을 특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언어학의 학문적 제도적 특성상 언어학 교육은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등을 중심으로 각각,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등의 개별 언어학의 형식으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언어학 전공 교육은 언어학과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 숫자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언어학 전공 전임 교수는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들 가운데 다수는 영어영문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언어학과 소속 교수는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언어학자들의 학문적 인맥 형성을 명료하게 기술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다분히 정서적 유대감이나 학연 등의 민감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대 언어학과 출신들이 이루어낸 인맥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허웅, 김방한, 이현복, 장석진, 이정민 교수가 길러낸 제자들로 이루어진 언어학자들이 제각기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김방한 교수의 제자들은 주로 역사 비교 언어학 전공자들이며, 이현복 교수의 제자들은 음성학, 음운론 분야에 속해 있고, 장석진 교수의 제자들은 화용론, 담화 연구, 언어 정보 등의 연구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정민 교수의 제자들은 형식 언어학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

지한다. 두 번째 인맥은 국어학 전공자들 가운데서, 언어학에 경도되어 있는 무리이지만, 이 분야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하다. 원로 학자로, 김민수, 고영근, 교수를 손꼽을 수 있으며, 중진 및 소장 학자로 남기집, 장경희, 임지룡, 시정곤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세 번째 인맥은, 영어영문학과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무리이다. 이들은 김현옥, 양인석, 양동휘, 이기용, 이홍배 등이 길러낸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 인맥은, 전국의 주요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수어권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언어학 전공자로서, 이들 인맥의 수장격으로는, 서정철, 홍재성, 전성기, 황경자, 박해현 교수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소장 학자로는, 장재성, 장인봉, 노윤채, 최용호 등 100여 명의 연구진을 이룬다.

다섯 번째 인맥은, 전국의 주요 독어독문학과에서 독어학을 전공하고 독일 어권 대학에서 언어학과 독어학을 전공한 언어학 전공자로서, 소장 학자로는, 이민행, 박여성, 강창우 등이 활동하고 있다.

여섯 번째, 영어, 불어, 독어 이외의 다른 서양 언어학 전공자들 및 동아시아의 언어 전공자들, 예컨대,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서, 아랍어, 고대어 전공자들도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어학계에서 크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일곱 번째,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언어학자들의 활동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국의 김진우, 손호민 교수를 비롯해서, 프랑스의 최석규, 최승언 교수, 영국의 연재훈 교수들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 언어학자들은 언어학과 또는 동아시아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언어학 범주에는 마땅히 북한의 언어 연구에 대한 통시적 개괄이 포함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¹²⁾

그 다음으로 주요 학회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김민수, 『북한의 국어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5.

정광, “구소련의 언어학과 초기 북한의 언어 연구”, 『언어 정보』 제2호, 1998, pp.143-217.

먼저, 동명의 학회로서, 한국 언어학회(서울대 언어학과), 한국언어학회가 있으며, 매년 학술지를 4번씩 내고 있다. 그 밖에 생성 문법학회, 담화 인지 언어학회, 텍스트 언어학회, 한국기호학회, 한국음성과학회, 국제언어인문학 회, 이중 언어학회, 한국어학회 등 언어학 및 국어학 관련 학회는 줄잡아 30 여개가 넘는다.

이들 학회에서 나오는 언어학 관련 학술지의 논문들을 주제별, 이론별, 분석 언어별 등으로 계량적 지표를 측정하는 작업도 한국 언어학의 경향과 흐름을 식별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7. 최근의 몇 가지 연구 동향

한국 언어학의 범주 속에 속하는 연구 동향의 대략적 지형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연구 대상 언어별로 지리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학회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론 성향으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절충적으로 지형도를 그리고자 한다.

먼저, 촘스키의 생성 문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전공자들은 촘스키의 이론을 표준이론에서 시작해서, 80년대에는 지배 결속 이론, 90년대에는 최소주의 이론 등에 대한 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한국어 통사론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왔다. 이들은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여했다. 이 분야의 대표적 업적으로는 양인석 교수, 양동휘 교수, 강명운, 장영준 교수의 업적을 손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보편 문법적 속성과 더불어 이들이 밝힌 한국어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물론 이들 연구는 통사론에 국한되지 않고,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등에도 적용되었다.

둘째, 같은 미국의 형식주의 이론에서도 비촘스키 계열의 이론을 전파한 학자들로서, 문태규를 비롯한, 비변형적 문법을 선호한 학자들의 통사론과 의미론 연구이다. 주로 형식 문법 연구회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촘스키의 통사의 자율성 테제를 부정하면서, 의미를 언어학의 근간으로 삼는 인지 언어학의 도입이다. 담화 인지 언어학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들 연구는, 언어의 기능, 담화 표상, 화용론 등의 문제등에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의 은유와 환유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김현옥 교수를 필두로 임지룡, 김명희 교수 등을 손꼽는다.

넷째, 문장 차원의 연구를 지양하고, 보다 더 넓은 단위인 텍스트를 연구 단위로 삼아서 연구하는 텍스트 언어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주로 독일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루어진 이들 연구군은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텍스트들의 특성을 해명하고 그 구조를 밝혀내고 있다.

다섯째, 언어 텍스트 차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 텍스트 및 문학 텍스트들을 거시적으로 다루는 기호학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물론, 기호학 전공자들 가운데는 언어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미디어 전공자들도 포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 기호학의 경우, 언어학의 모델이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진작시켰다.

여섯째, 인지 과학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 핵심적 동인으로서, 언어학은 인공 지능, 음성 인식, 뇌와 언어의 관련성 등인지 과학의 중핵으로서 위치하며, 언어의 인지적 토대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켰다.

일곱째, 모국어 획득 및 제2언어 획득에 대한 연구 및 자동 번역 등의 첨단 문제를 연구하는 응용 언어학 등의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컴퓨터에 기초한 전산 언어학의 발전으로, 사전 편찬 및 코퍼스 언어학 등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8. 한국 언어학의 한계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성찰

한국 언어학회가 창립된 1975년 이후부터 언어학 관련 학술지는 늘어났다. 엄밀한 논증을 생략한 채, 평소 생각해 본 한국 언어학계의 몇 가지 문제점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첫째, 현대 언어학의 다양한 학파와 이론들 가운데서도, 촘스키의 생성 언

어학에 대한 거의 배타적 연구로 일관함으로써, 학문 다양성의 정신에 위배되었으며, 언어학 영역 자체를 편협화시키고 있다. 통사론의 자율성 테제로 인하여, 언어의 다양한 현상들을 학제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차단되었다.

둘째,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된 시각으로서, 서구의 특정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앞 발자국 더 나갔다 해도,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론과 모델 적용에서 나타나는 세부 사항을 지적한 후, 모델의 부분적 수정을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서구 이론 자체의 역사적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나가는 언어학의 철학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자신의 언어 이론 또는 언어 모델을 제시한 사례는 전무하다.

셋째, 다시 두 번째 문제와 직결된 한계점으로서, 서구 언어학 이론의 형성과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서구의 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 및 과학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듯이, 언어학사와 언어학의 철학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작업이 부재한다.

넷째, 언어학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분명히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생한 자연 언어들로서, 못 잡아도 3,000개가 넘는다. 그런데 한국 언어학계에는 촘스키의 영향과, 언어학과 국어학의 잘못된 동일시로 인해서, 연구물의 90%가 국어와 영어로 그치며, 기껏해야, 불어와 독어, 러시아어 등의 제2외국어의 데이터가 취급되었을 뿐이며,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등의 피진과 크레올을 비롯한 유형론적 연구는 부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언어 유형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언어 인류학과 민속 언어학 등의 연구자가 없는 상태다.¹³⁾ 약 300편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연구 대상어는 영어와 국어가 95%이며, 간혹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희귀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다.¹⁴⁾

13) 서구 언어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언어들을 어족별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도 유럽어족(이 어족에는 벵갈어, 페르시아어, 히타이트어를 비롯해서 로망스어, 게르만어등이 포함되는 최고의 어족이다.) 2. 아시아와 지중해 언어 3. 바스트를 비롯한 이베리아 반도 언어 4. 드라비다어 5. 남부 아시아어 6. 유라이서어 7. 오스트로네시아, 파파뉴기니아, 오스트렐리아 언어 8. 세미트 언어 9. 남 사하라 아프리카 언어 10.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 11. 피진 크레올

다섯째, 한국에서의 언어학 개념은 국어학 개념과 묘한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다. 언어학이 상위 범주이고, 국어학은 개별 언어학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자를 동일 수준에 놓고 등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국어학의 연구는 현대 언어학의 이론과 개념, 방법론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참으로 묘한 혼동이다.

여섯째, 이 문제는 비단 한국의 언어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촘스키 이후, 영어 중심주의로 인해서 나타난 개탄할만한 상황이다. 즉, 20세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구미의 언어학자들은 최소한 10여개의 언어에 대해서 능통했으며, 언어 비교를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자칭 언어학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거의 영어나, 자신이 전공하는 제2외국어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고전어는 물론, 희귀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다. 이것은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 심어 놓은 허구에 기인한다. 즉, 모든 언어의 심층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만 깊이 있게 연구하면 모든 언어의 심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가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이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이론 정향으로 빠진 나머지, 다양한 언어들과의 접촉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언어 일반의 추상화를 논하는 경향으로 빠지고 말았다.

일곱째, 여섯 번째 상황과 직결된 문제로서, 언어의 과학적 형식적 연구로 매몰된 나머지,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와 맺는 관련성을 비롯해서, 언어사와 문화사, 언어와 윤리, 언어와 예술 등의 관련성을 비롯해서, 문화 언어학의

-
- 14)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최초의 언어학 학술지인 파리 언어학회의 공식 기관지에서 취급되는 언어 자료들의 폭은 전세계 모든 언어권을 포괄하고 있다.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Bulletin de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다루어진 언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 그리스어, 사이프러스어, 마케도니아어, 인도유럽어, 티벳어, 아르메니아어, 라틴어, 중국어, 타갈로그, 한국어, 일본어, 갈로 로망어, 포르투갈어, 크레올어, 아랍어, 헝가리어, 고독일어, 수메리아어, 히타이트어, 알바니아어, 산스크리트어, 타몰어, 불가리아어, 말가쉬어, 버머어, 고딕어, 불어, 이란어, 고대이란어, 아베스틱어, 베르베르어, 터키어, 몽골어, 폴란드어, 키루르디어, 헤브라이어, 프로방살어, 우르비크어.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20세기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야콥슨의 격언, “언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나의 관심을 끈다”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에 대한 총체적 양상을 이해하려 했던 인문적 언어관이 증발되고 말았다(물론 약간의 예외는 존재한다. 김완진의 『언어와 문학』 등). 특히, 야콥슨은 문학 언어를 언어학 연구의 최고의 자료로서 제시하면서, 현대 시학을 정립함과 동시에, 시학을 언어학의 분야 속에 통합시켜놓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식주의 언어학의 득세로, 이 같은 전통은 현대 언어학에서 완전히 증발될 위협에 놓여 있다.¹⁵⁾

여덟째, 바로 일곱 번째로 지적된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언어학의 연구 분야들은, 마치 서구 수사학의 운명처럼, 갈수록 그 분야가 협소해져만 나감으로써, 역사학, 문학, 철학, 인류학, 미학 등의 인문학자들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언어학자들, 그들만의 폐쇄 회로에 함몰되고 말았다. 예컨대, 한국의 언어학 전공자들의 절반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영어영문학과에서, 문학 전공 교수와 언어학 전공 교수들 사이에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 동일한 언어 현상, 즉 언어 텍스트에 대해서 그들은 최소한의 지적 대화마저 나눌 수 없게 된 것이다. 고영근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진영은 한과에서 각방거처를 하고 있는 사실상의 학문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영문학과라는 학과 단위의 인식론적 제도적 정당성에 대해서 필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점은 벵베니스트와, 코세리우 등 20세기 최고의 유럽 언어학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며, 언어학의 고립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예컨대, 필자의 박사 학위 지도 교수였던 아리베 교수는, 프랑스 최고의 문법학자였음과 동시에, 의미론과 기호학의 권위자였으며, 초현실주의 시인 자리의 최고의 권위자였다. 또 코게 교수는, 주체적 발화 작용 언어학 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아폴리네르의 권위자였다. 아예 언어학과 문학 교수를 겸임

15) 장석진 교수가 편집한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1994) 라는 제목의 책에는 무려 32개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 언어와 역사, 언어와 문학 등에 대한 시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할 정도로, 두 분야에 모두에 걸쳐 권위를 갖고 있었다.

열번째, 한국 언어학자들의 논문과 저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논증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어 예문들이 한국화자들이 평생 한번 사용할까 말까한 절묘한 문장이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문장들이 예문들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촘스키 이론가들이 수용 가능한 문장들로서 모국어 화자의 판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지어내는 어색한 문장들은 필자처럼 언어학 전공자는 물론, 언어학 비전공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필자에게 왜, 그런 엉터리 문장들을 갖고 논문을 쓰느냐고 편찬을 들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열한번째, 제도적 문제로서, 한국 언어학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영어전공자와 국어 전공자들이 거의 모든 연구를 독점하면서, 다른 언어권 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학자들은 각각 개별 어문학 학회에서 활동하거나 자기 전공의 보다 작은 규모의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언어학 전공자들은 이 모학회에서 논문 발표나 활동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적이다. 요컨대, 미국 언어학의 형식성을 학문적 완성도의 척도로 삼거나, 특정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언어학의 특정 분야만을 연구 대상으로 인정하는 학문적 프리즘을 통하여 비영어권 언어학의 다양한 언어학적 관점을 전달하는 논문들이 게재를 거부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¹⁶⁾ 이것은 결국 제도화된 한국 언어학계의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16) 독일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고 언어학 서지에는 언어학의 연구 분야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거니와, 이들 주제가운데 어느 하나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는 논문 이라면, 당연히 언어학의 연구 성과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정신을 지니고 있거니와 기존의 한국의 일반 언어학 관련 학술지들은 편집 및 게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언어 일반론(일반 언어학) 2. 언어학사 1) 서구 전통: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 인도 전통 3) 아랍 전통 3. 언어 이론 4. 언어 철학 5. 기호학(비구두 커뮤니케이션, 동물 커뮤니케이션) 6. 언어간 언어학(interlinguistics) 7. 응용 언어학 8. 음성학과 음운론(조음 음성학, 음향 음성학, 청취 음성학, 음성 테크놀로지, 초분절 음운론) 9. 형태음운론 10. 문법론(형태론과 단어 형성: 굴절 형태론, 파생 형태론) 11. 통사론 12. 텍스트 언어학 13. 어휘(어휘론과 사전 편찬학: 단일어 사전 편찬학, 다개국어 사전 편찬학) 14. 어원론 15. 전문술어론 16. 구절론(phraseology)

한국 언어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판단된다.

인용문헌

- 고영근·성광수·심재기·홍중선(편). 『국어학연구백년사』, 일조각, 1992.
 김민수(편). 『현대의 국어 연구사』(1945-1992), 서광학술 자료사, 1993.
 김민수. 『북한의 국어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5.
 김완진. 정광, 장소원 공저, 『국어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7.
 복지진. 『중국언어학사』, 김현철 외 번역, 신아사, 1995.
 王力. 『中國語言學史』, 중국 도서간행사, 홍콩, 1984.
 猿田知之. 『日本言語思想史』, 笠間書院, 1993.

17. 의미론(어휘 의미론, 문법 의미론) 18. 화용론 19. 문체론 20. 운율론 및 작시법
 21. 번역학 22. 스크립트 및 철자론 23. 심리언어학 24. 신경 언어학 25. 문자론 26.
 독서론 27. 언어와 기억 28. 언어획득론(모국어 획득론, 제2언어 획득론) 29. 언어 병
 리학(언어 발달 저애, 실어증등) 30. 사회언어학(언어 정책학, 다개국어 병용론, 언
 어 접촉, 언어지리학) 31. 방언학 32. 역사 비교 언어학 33. 언어 유형론 34. 수리 언
 어학 및 전산 언어학 35. 고유 명사학(onomastics)(인명학, 지명학)
 한 예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어학 학술지인 랑가쥐에서 주제의 폭은 참고할만하다.
 Langages, 1969.

언어 병리론, 언리학, 불문법 이론, 생성 음운론, 언어학에 있어서 모델, 몸짓 언어,
 사회 언어학, 담화 분석, 생성 통사론의 새 경향, 소련의 언어학, 심리언어학과 생성
 문법, 발화 작용, 인종 언어학, 사전 편찬학, 분포 및 구조 분석, 언어 철학, 서술 기
 호학, 정치 담론, 언어학의 인식론, 신경언어학과 신경 심리학, 독일어권에서 생성
 문법, 생성 의미론, 번역, 환언, 논리학과 언어, 텍스트 기호학, 언어 변화, 사우미안
 과 응용 생성 문법, 영국에서의 언어학 경향, 기호학의 문제 및 방법, 여취적 신조어,
 담화 분석, 언어, 이데올로기, 격문법, 언어학과 언어 교육, 심리 의미론의 체문제,
 정치 담론의 유형론, 논증과 정치 담론, 양태, 독서 장애 및 실독증, 교육 담론의 형
 성, 언어와 사회 계층, 실어증과 실서증, 양화사와 지시, 소쉬르와 소쉬르 이전의 언
 어학, 언어학과 라틴어, 생성 시학, 조레스 담론의 언어학적 분석, 법률 담론, 은유,
 담화 분석과 일반 언어학, 싸인 언어, 외국어 학습 및 지식, 기호 언어학을 넘어서,
 언어적 행동과 학교의 사회 언어학, 생성 통사론과 비교 통사론, 이개국어 병용, 고
 유 명사, 일본언어학, 필사본-글쓰기, 이개국 병용의 신경 언어학, 명명, 형태론의
 귀환, 발화 작용에서 어휘로

유창균. 『국어학사』, 1994, 강신항, 『증보개정 국어학사』, 1987.

정 광. “구소련의 언어학과 초기 북한의 언어 연구”, 『언어 정보』 제2호, 1998.

胡奇光. 『中國小學史』, 동문선, 1994.

Amsterdamska, O. *Schools of thought: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from Bopp to Saussure*, Dordrecht, Reidel. 1987.

Auroux, S. “The first uses of the French word “Linguistique”(1812-1880)” Aarsleff, H. et al. (eds.), *Paper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 Benjamins. 1987.

Auroux, S.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tome 3, Bruxelles, Mardaga, 2002.

Auroux, S.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Liege-Bruxelles, Mardaga, Introduction, 1989.

Botha, R. “External evidence in the validation of mentalistic theories : A chomskyan paradox”, *Lingua* 48, 1979.

Botha, R. *The justification of Linguistic hypotheses (a study of nondemonstrative inference in transformational grammar)*, The Hague/Paris, Mouton. 1973.

Botha, R. *The methodological status of grammatical argumentation*, The Hague/Paris, Mouton. 1970.

Bourdieu, P. “Le champ scientif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n.2-3, 1976.

Chevalier, Jean-Claude & Encreve P. *Vers une histoire de la linguistique*, in: *Langue Francaise no.63*. 1984.

Fiucault, M.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66.

Itkonen, E. *Grammatical theory and metasci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1978.

Koerner, E.F.K. *Practicing Linguistic Historiography (Selected Essay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9.

Malmberg. *Histoire de la linguistique*, Paris, PUF, 1991.

Schmitter, P. (ed.s). *Geschichte der Sprachtheorie*. 1. Zur Theorie und Methode der Geschichtsschreibung der Linguistik, Tübingen, G.Narr, 1987.

[Abstract]

A Cognitive Approach to the identity of Korean Linguistics

Sung-Do Kim
(Korea University)

In this paper I am arguing in favour of more vigilance on the part of the Korean linguistics' milieu and, if deemed necessary, a more solid epistemological foundation of the Korean Linguistics. The purpose of this work consist in providing some epistemological inquiry on the major orientations and tendencies which are manifested in the reception of western linguistic theories. I might call this point of view as a critical approach to the philosophy and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In the first section, I gave a short description of the model of the linguistic historiography which can be applied to the history of the Korean linguistics. In the second section, I am concerned with the comparative epistemology of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ideas produced in the West and East. In the final section, I made som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limits of Korean linguistics.

[부록] 『Language』 및 『언어』지 주요 경향 분석 통계 자료

(다음의 분석 통계 자료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조사로서, 전혀 정밀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더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연구 방향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대략적 소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 조사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한국의 언어 연구가 특정 언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연구 주제의 편협성, 특정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치중 등이 숫자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언어지 수록 논문 분석 통계

1. 기간: 1976-2002
2. 총 논문 수: 616편
3. 쓰여진 논문 언어

언어	영어	국어	독어	불어	계
빈도	317	292	4	3	616
백분율	51.461039	47.402597	0.6493506	0.487013	100

4. 주제

주제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	기타	통사-의미론	화용론	문법론
빈도수	195	136	120	32	30	21	13
백분율	32.655844	22.077922	19.480519	5.1948052	4.8701299	3.4090909	2.1103896
의미-화용론	형태론	사회언어학	언어습득	전산언어학	음운-형태론	문자표기	문학과 언어학
11	10	7	7	7	6	5	4
1.7857143	1.6233766	1.1363636	1.1363636	1.1363636	0.974026	0.8116883	0.6493506
심리언어학	언어교육	언어정책	형태-음운론	언어병리학	언어교육	인터페이스	계
3	2	2	2	1	1	1	616
0.487013	0.3246753	0.3246753	0.3246753	0.1623377	0.1623377	0.1623377	100

5. 저자

10편 이상 기고자: 양동휘, 이기동 총 2명.

5편 이상 기고자: 박은주, 김미경, 김정석, 박병수, 박승윤, 박승혁, 신수송, 윤영은, 이익환, 이홍배, 전상범 총 11명.

3편 이상 기고자: 강범모, 강석근, 강영세, 강현숙, 구장희, 김경학, 김대원, 김대익, 김명희, 김수연, 김명화, 김용범, 김용석, 김종미, 김진우, 남원식, 박한기, 백응진, 서정목, 서정수, 송석증, 시정곤, 신현숙, 안상철, 안승신, 양병곤, 양인석, 염재일, 오미라, 윤만근, 이기용, 이병춘, 이보림, 이봉형, 이상억, 이석재, 이선우, 이영현, 이은지, 이정민, 이정식, 이환득, 장경희, 정명희, 정태구, 조미정, 조의연, 조혜성, 초미희, 표진이 총 50명.

6. 다루어진 데이터 언어

언어	국어	영어	독어	일어	불어	에스키모어	스페인어
빈도수	335	243	18	14	6	5	3
백분율	52.672956	38.207547	2.8301887	2.2012579	0.9433962	0.7861635	0.4716981
케르만	기타	러시아어	인도-유럽어	조지아어	중국어	할하몽골어	Kihehe
1	1	1	1	1	1	1	1
0.1572327	0.1572327	0.1572327	0.1572327	0.1572327	0.1572327	0.1572327	0.1572327
Kusaican	Ponapean	Takelma	Yidi	계			
1	1	1	1	636			
0.1572327	0.1572327	0.1572327	0.1572327	100			

7. 이론적 프레임워크

변형생성문법, 문태규 형식 의미론, 인지문법, 최적성 이론, LPSG, GPSG, LFG 외

<제출자: 윤상윤>

'Language' 수록 논문 분석 통계

- 1. 기간: 1977-2002
- 2. 총 논문 수: 549편
- 4. 주제

주제	윤성하·윤순환	황태문	홍사론	외박근	인터페이스	문자표기
빈도수	97	15	165	117	45	4
백분율	17.67	2.73	30.05	21.31	8.2	0.73
언어정책	언어병리학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전산언어학	계	
2	1	29	72	2	549	
0.36	0.18	5.28	13.11	0.36	100	

- 6. 다루어진 데이터 언어

언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국어
빈도수	455	9	6	6	6	1
백분율	82.88	1.64	1.09	1.09	1.09	0.18
기타	계					
76	549					
13.84	100					

- 7. 이론적 프레임워크

	변형생성론	근대규형의 의미론	인지문법	기타	계
빈도수	132	82	49	286	549
백분율	24.04	14.94	8.93	52.09	100

<제출자: 유기순>